

■ 그림 여행



질투 (Jealousy c. 1889)

탐 로버츠 (Tom Roberts 1856- 1931)
캔버스에 유채 92.1 cm x 139.7 cm
사진: 뉴 사우스 웨일즈 미술관

'질투' 라는 개념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 꽤 있다. 그 중 제일 유명한 버전은 노르웨이 베르젠 미술관에 있는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질투' 가 아닌가 싶다.

뭉크의 '질투' 그림 속에는 푸른 정원에서 두 남녀가 비밀스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그 모습을 이 글거리는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 정면을 향해 그려져 있다. 그림의 구도상 이 남성이 상대 남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 관객은 그가 정원 속 남녀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고 또 그 모습

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질투의 화신이 된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활동했던 호주 화가 탐 로버츠가 그린 이 그림은 사랑을 속삭이는 두 남녀와 그들을 향해 질투를 불태우는 제 삼자가 있다는 설정은 같되 그 주인공이 여자인 것이 다르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뭉크의 질투하는 남성이 상대 커플의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분노와 적개심에 휩싸였다면, 로버츠가 그린 그림 속의 여성은 문 앞에서 두 남녀가 나누는 대화를 귀로 '들으면서' 질투를 느끼고 경악과 자괴감에 빠져 버렸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수 많은 차이점들 중에 남성은 '보면서' 사랑을 느끼고 여성은 '들으면서' 사랑을 느낀다는 말이 있는데 공교롭게 두 그림들이 그 차이점을 질투의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그런데 그림 속 여성이 질투를 느끼면서 얼굴이 굳어진 채 자괴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안타깝다. 질투를 느끼면 질투의 대상을 죽여 버릴 듯 적개심과 공격성을 상대방에게 표출시키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신 속에 내면화 하는지 알고 싶다. 아니, 이미 알 것 같기에 더욱 더 안타깝다.

그늘진 구석에 숨어 질투에 몸을 떨며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여자여, 일어나 당당하게 문 앞으로 걸어 나가기 바란다.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두 남녀를 무심히 지나쳐 햇빛 가득한 문 밖으로 나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 그대 만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기 바란다.

김동백

따뜻한 마음과 손으로 모시는
**남가주 한인
장의사 이호섭**

LA/OC/San Bernardino/Riverside
지역에 관계없이 상담, 장례 인도해드립니다.



이호섭 장의사
FDR 4701
시신 방부사
EMB 9702
장례보험
4287740

장례는 신속히 경비는 저렴하게
예식은 아름답게 최고급 식당에서
책임지고 모십니다.
비교 확인 하십시오.



매장, 화장, 장례보험
풀러턴 소재 스킷 맥콜리 패밀리
장의사(FD 1593)와 함께 일합니다.
개인 상담, 단체모임(교회)에서
무료 세미나 해드립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장의사,
시신방부사, 로즈힐 묘지 근무.

C.714.951.2520
O.714.870.630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VISIT US

Your Health is
Our Priority

한분 한분 친절과
정성으로 섬깁니다.

행복한 약국,
웃음이 있는 약국

건강을 생각하는 약국,
정약국입니다.

각종 보험 환영(메디케어/메디케이드/HMO/PPO)

그랜드 오픈

정약국



Jung Pharmacy



정은혜 약학 박사
(Grace Jung)

건강 상담/혈압 당뇨 측정/예방 접종/처방약 조제/무료 배달 서비스/한국약 판매/비타민/건강 보조제

정약국 714.752.6027

Open hours: 월-금 9am-6pm / 토 9am-2pm | Fax: 714.676.5508
카카오톡 ID: jungrx | 6771 Beach Blvd. Ste E, Buena Park, CA 90621



소스몰 맞은편, 명인만두 옆